영문 밖 삶의 진수와 그 감격

(히13:1~25)

10.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11.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12.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14.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16.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영문 밖 삶의 진수와 그 감격>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영문 밖에서 산다는 것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체 무엇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 때 우리에게 어떤 감격적인 상황이 주어질 수 있는가, 라는 얘기를 함께 해봅니다.

한 2주일 정도 됐을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승강기 문이 열리고 정면으로 바라보이는 곳에 사진들이 들어있는 포스터가 두 장이 떡 붙어 있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세월호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지금 검찰에 계속 쫓기고 있는 구원파의 우두머리인 유병언이라는 사람의 사진이 크게 붙어있고, 그 밑에는 그 사람이 변장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진들이 여러 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하나의 포스터에는 유병언이라는 사람의 아들인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사진이 붙어있는데, 그 아들은 원래 그렇게 생기신 건지 사진이 그렇게 나온 건지, 얼마나 험악하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외모 갖고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 하여가 그렇게 험악한 사진이 붙어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붙어있어요, 지금도, 어떻게 좀 적당히 하고 딴 데다 갖다 붙이면 좋겠어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걸 봐야 하니까.
그러면서 생각해봅니다, '야~ 이게 바로 생매장이구나!'
생매장이 뭡니까? 살아있는데 매장한 거 아닙니까?
유병언이란 사람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들도 그렇고.
근데 이 시골 강릉, 인구가 18만밖에 안 되는 강릉의 한 아파트의 엘리베이터까지 그 사진이 다 붙어가지고 현상금이 5억이라고 방방곡곡에 알려지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얼굴 들고 햇빛 아래서 걸어 다닐 수 있겠어요?
대한민국, 4천만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인간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매장돼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인의 처지를 한 번 생각해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과연 무엇인가?
비유적인 의미에서 기독교인은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생매장 하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사회로부터 내 마음이 격리되도록 하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다 이겁니다.
이 내용을 오늘 본문이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이 하늘나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관계적 용어로 표현하면 무엇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이 보이는 어떤 것들보다 먼저 들이면서 상대하는 것, 하나님의 계심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심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있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을 다시 오늘 결론적으로 '영문 밖의 삶'으로 규정하고 끝을 냅니다.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이라는 게 영어로 되어있는 문장을 말하기도 하고, 내가 도무지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겠다고 할 때도 '영문을 모르겠다'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문(營門)은 군영(軍營), 병영(兵營), 할 때의 그 영(營)자입니다.
즉, 모세를 따라서 200에서 250만으로 추정되어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로 나와 40년을 살게 되는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계속 이동만 한 게 아니라 진을 치고 머물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법궤를 안치하고 있는 성막, 텐트가 일단

자리를 잡고 기준을 잡으면 그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의 방향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치고 전체의 진을 짜게 됩니다.
이 진의 안쪽이 영문(營門)인 거예요.
그리고 영문 밖이라는 건 이 진 바깥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강릉 인구가 18만이고 분당에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40만밖에 안 됩니다.
부산 인구가 200만이 좀 넘나요?
근데 이 25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진을 치니까 엄청난 거죠.
그 진이 인간사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한 달이고 일 년이고 머물고 있을 때는 그 안에서 삶이 진행되고 있는데,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 바깥을 말하고, 대체 이 진 바깥의 영문 밖의 용도가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레위기 13장에 보면 영문 밖의 용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나병환자, 그 옛날에는 하늘이 내린 벌이었습니다, 요즘은 피부병으로 취급하지만.
그 나병환자가 생길 때 진 밖에 나가서 혼자 살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유출병,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정하신 규정에 따라서 부정하다고 규정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 바깥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머물고 있다가 들어오든지, 부정함의 이유가 개선되지 않으면 끝까지 그 영문 밖에서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이런 용도가 있고, 또 일 년에 한 번씩 드리는 속죄제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면, 그 영문 밖에서 가죽과 살 전체를 불태워버렸습니다.
이런 용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인간사회, 40만 분당 인구가 여섯 개가 모여 있는 거대한 인간사회가 텐트를 치고 진을 형성해서 살고 있는데, 이 인간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곳이 영문 밖입니다.
인간의 공통된 삶의 현장으로부터 죄인을 격리시키는 감옥소와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민들이 살고 있는 인간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려진 곳이지요.
즉, 이 말은 인간사회 안에 포함돼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이 다 끊어진 곳이고, 인간사회 안에서 약속된 좋고 나쁨에 대한 어떠한 가치도 주어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인간사회가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인간사회의 바깥인 영문 밖이라는 곳은 치욕과 상실과 인생 패배의 loser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저주스러운 삶이 펼쳐지는 장소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장소인 골고다가 예루살렘 성문 바깥

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골고다 언덕이 영문 바깥과 똑같습니다.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가 그 옛날 진영 밖에 있는 영문 밖의 장소가 갖는 의미와 똑같다는 겁니다.
이처럼 같게 보는 것은, 영문 밖에서 속죄 제물로 드려진 송아지의 몸을 불태우듯이 속죄 제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의 골고다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영문 밖이라고 하는 게 삶의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이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는 거예요.
참으로 힘차게도 권유하고 있는데, 이것 참! 주저 없이 Yes! 하기가 곤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은 치욕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거예요.
인간사회 안에 소속될 수 없다, 구원파의 유병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인간사회로부터 격리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간사회로부터 격리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거 뭐 유병언이라는 사람과 병행해서 얘기하니까 이상하긴 합니다마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뱀의 지혜를 우리가 가지라고 할 정도까지도 쓸 수 있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유병언은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비유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치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치욕의 장소인 영문 밖의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나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 하면, 인간사회에서 얻을 수 있는 좋다고 하는 그 어떤 것도 주어지지 않는 영문 밖의 장소입니다.
인간사회로부터 격리된 곳이고 인간사회가 정한 가치로부터 격리된 곳이고, 인간사회가 주는 행복으로부터 격리된 곳입니다.
그래서 치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치욕은 인간사회 안에서 주어지는 치욕입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옛날 구약에서 언약에 따라 제사에 종사하던 종사자들은 맛볼 수 없는 제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요, 맛볼 수 없지만 하나도 맛보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문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제물을 드리면 제사장들이 조금 먹게 돼있어요, 제사물의 고기들을.
근데 속죄제는 아무것도 못 먹습니다, 그냥 영문 밖으로 가서 다 태워버려야 되니까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므로 구약적 언약에 묶여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사건에서 먹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언약에 묶여있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한 율법을 잘 지키면 인간사회 안에서 1등 되게 해주시겠다는 게 쉽게 말해 구약의 언약이에요.
인간사회 안에서 높임 받게 하고, 인간사회에서 좋다고 규정한 것들을 많이 주고, 그러겠다는 게 언약입니다.
왜 이런 언약이 생겼다고요?
내 존재가 죄적인 구조로 마음이 몸에 달라붙어서 몸이 이끄는 대로 살고 있는데, 그걸 죄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죄적인 구조에서 좋다고 느끼는 것들을 내가 줄 테니 내가 제시한 율법대로 한 번 살아봐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 주어진 게 구약의 언약이죠.
그러므로 이 구약의 언약에 매여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인간세상에서 잘된다, 인간세상에서 정한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갖게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못 믿는다 이거예요.
인간세상에서 높임 받고 인간세상에서 경쟁에 1등 하고 인간세상에서 높은 자리, 대통령 되고 국무총리 되고, 그룹 회장 되고, 이런 걸 꿈꾸고 있는 사람은 예수 못 믿는다 이겁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나가려고 하면 인간사회에서 좋다고 규정하거나 괜찮다고 규정한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인간사회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사건이 인간사회 밖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아~~! 이거 뭐 어떻게 믿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데, 다 인간세상 안에서 뭔가 1등 하려고 믿는 마음이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인간세상에서 뭔가 잘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히브리서 저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으려면 인간세상 바깥으로 나가라, 인간세상에서 정한 모든 가치로부터 격리되는 그 장소로 가라는 겁니다.
즉, 치욕을 짊어지고 가라는 거예요.

인간사회에서 좋다고 하는 걸 아무것도 못 갖고 있는 게 치욕이고 부끄러운 것 아닙니까?
치욕을 짊어지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로 내려가라는 얘기니까, 이거 어떻게 믿겠습니까?
왜 이래요, 대체 왜?
인간세상에서 좀 얻을 걸 얻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잖아요, 14절에 '우리에게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곳은 인간사회가 끝나는 곳입니다.
인간사회가 끝났기 때문에 뭐가 시작됩니까?
신의 사회, 하나님의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인간세상이 끝나고 신의 세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우리가 붙잡고 예수님과 내가 같이 죽었다고 믿는 이 믿음의 이유가 뭐냐 하면, 구약의 언약 때처럼 하나님 잘 믿으면 인간세상에서 뭔가 좋은 걸 주시겠지, 하고 바라서가 아니라, 인간세상이 끝나는 그곳에서만 하나님의 세상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인간세상 바깥에 있는 십자가를 붙잡는다 이겁니다.

그러니 종 쳤어요, 예수 믿음과 동시에 이 인간세상 안에서 뭔가 좋은 것들을 많이 얻고, 좋은 것이란 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마음이 육체에 굴종돼있는 상태에서 판단할 때 좋다고 하는 것들이 좋은 건데, 그것들을 많이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삶이 종 쳤다 이겁니다.
아예 그걸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었다고 연합하려는 사람이 인간세상에서 뭔가 좋은 것을 얻거나 인간세상에서 경주해서 1등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모순이고 오류라 이겁니다, 그건 아예 없는 얘기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일에 연관된 사전 속에는 인간세상에서 잘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세상에서 잘된다는 말을 하는 모든 설교는 다 거짓말입니다.
오직 인간세상을 끝내고 하나님의 세상을 나의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만이 진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문 밖에서 십자가사건이 일어났으니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들어와서 난리를 치면서 사는 것,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만약 내가 현재 대통령으로서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가 지금 재벌그룹의 회장이에요, 아니면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고, 가정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영문 밖으로 인간세상을 떠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겁니다.
여기서 절대로 우리 몸이 인간세상을 떠나는 건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인간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인간세상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7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게 무슨 얘깁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2천 년 전에 달리셨지만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2천 년 전에 부활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2천 년 전에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동일하신 승천하신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나타날 수는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을 붙잡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아버지께로 마음이 올라가면서 인간세상을 빠져나가는 겁니다.
인간세상에서 뭘 얻는 게 아니에요.
인간세상을 빠져나가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게 해주는 십자가사건, 영문 밖은 어디 있느냐?
영문 밖으로서의 골고다는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현재의 사건으로서.
그러므로 나만이 들어갈 수 있는 비밀 문과 같은 것이에요.
누구랑 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혼자 매달리셨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한다는 것은 혼자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에서 마음이 십자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간사회를 벗어나는 거죠.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크게 키워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 자리에서 인간사회를 떠나는 겁니다.
그룹총수 자리에서 인간사회를 떠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가정 안에서 인간사회를 떠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떠나고 나면, 몸은 남아있는데 어떡하자는 얘기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청와대에서 골고다에서 일어난 십자가사건에 연합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되면, 승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요즘 날씨가 덥잖아요?
설악산 계곡에 들어가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 발에서부터 느끼는 시원한 느낌이 머리끝까지 전달이 되면서 '아!~ 시원하다~!' 하고 말이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더워 죽겠는 여름에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입을 꽁하고 다물고 있다면 그건 좀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정상이 아니죠.
'아, 시원하다~!' 탄성이 나오지요, 그 얘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세상을 떠났어요.
인간세상을 떠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느낌이 오는 거예요, 계곡물에 발을 담갔을 때처럼.
그리고 그 느낌이 오직 입만 열면 하나님 얘기를 하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전에 영문 밖에 있는 골고다에서의 십자가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기 전에 인간사회에서 살 때는 어떡하면 인간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들을 많이 얻기 위해 경쟁에 1등 하느냐가 관심이었는데, 영문 밖의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인간사회를 떠나서 하늘나라와 하늘나라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만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인간사회 안으로 들어가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하늘나라 말밖에 없어요.

인간사회에서 1등 하는 게 관심이 아니에요.
인간사회에서 내가 꼴등이라고 생각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관심도 없어요.
인간사회가 정해놓은 가치들을 얼마나 많이 얻느냐는 관심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관심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입술의 열매로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죽으셨고,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 따라 내 마음이 부활 승천했더니 하나님을 느끼게 되니까, 계곡물에 발 담갔을 때 느끼는 그 시원한 느낌, 하늘나라에 담겨진 그 마음의 쾌감을 전달하느라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합니다.
선이라는 게 뭐에요? 오직 하나님만 선하셔요.
하나님만 선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뜻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인간세상에서 1등 하려고 살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인간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넣어주시는 뜻만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으니 마음이 배불러서 자꾸 줍니다.
그냥 다 거저 줍니다, 거저 줘요.
이게 바로 영문 밖의 삶의 감격이라는 겁니다.
수가 성 여인이 그랬던 거 아닙니까?
격리됐어요, 사람들이 다 치욕적으로 손가락질 하는 바람에 수가 성 여인이 혼자 살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제일 더울 때 물을 뜨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땅에 내려오신 하늘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동네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사회 바깥으로 내몰아졌다가 예수님 만나고 인간사회로 들어가서 한 말이 뭡니까?
예수님만 전합니다.
이게 바로 영문 밖 삶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직도 영적으로 촌스럽게 인간사회 안에서 1등 하겠다며 살고 있습니까?
촌티를 벗읍시다, 이거 정말 촌스러운 거예요.
인간사회를 떠나는 것이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둔 사람으로서 하늘나라만 자랑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다 줘버리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영문 밖 삶의 진수요 감격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인간세상 떠나는 것 하나도 주저할 수 없음을, 우리 마음이 깊이 깨닫고 미련 없이 떠나고, 마음이 하나님께 담겨서 느껴지는 모든 감격을 인간세상을 향하여 노래하며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